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선물로 받은 하루를 어떻게

선물로 받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요?

오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바쁘다, 바쁘다'를 외치며 살아내고 계신가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많은 행복한 구속에 머물게 하나요?

보답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세상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붉은 태양이 살금살금 걸어서 뜨거운 여름날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태양이 뜨거운 6월의 막바지다. 새벽 5시인데 벌써 태양이 눈앞을 가린다. 반바지에 반소매에 모자를 쓰고 런닝화 끈을 조인다.

속으로는 '유월이 이렇게 더웠던 말인가, 올해도 더울 것이라고 하더니, 벌써 정허구먼'을 수없이 되낸다.

이러한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우리



박여범

충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날로 뜨거워지는 삶의 현상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머리를 마데고 깊은 고민을 펼쳐 보아야 할 시기를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붉은 태양이 살금살금 걸어서 뜨거운 여름날로 도망치고 있다. 붉은 짙어지고 긴 여름을 지나면 가을도 짙어진 계절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유행가(이선희) 가사처럼 당신의 안위가 걱정된 하루였어요.

병면, 콩국수에 수박 한 조각, 아이스크림, 얼음, 주머니를 목에 밀착하고 견뎌야 하는 뜨거운 여름, 아직 장맛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에 비해 늦다. 마른장마라

정의해도 관습을 뜻하다.

트윗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게 된 붓이 있다.

이 붓님의 문장을 옮긴 글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책 속 아름다운 문장을 길러와 장독으로 옮겨 담은 붓입니다. (문장 품은 장독@good\_pot)

"바다가 불려도 바다에 간 적 없고 바다가 사랑한다면서도 깨어지는 파도가 파기를 두려워하나요? 산을 사랑한다면서도 떨어지는 일새가 파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산이 움직여도 산에 들어간 적 없는 놀이와다" 김중식 「갈대 3」 중에서 『황금빛 모서리』 p.79

선물로 받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요? 붉은 태양이 살금살금 걸어서 뜨거운 여름날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 가장 힘듭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하는 시진핑



1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는 대형 비디오 스크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 법원, '미투 유죄' 빌 코스비에 석방 명령



6월3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4월 24일 빌 코스비가 펜실베이니아주 노리스타운의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사설

어느 언론사의 기사 첨삭교육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말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실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재를 고를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떻게 글을 쓸지에 대해 막막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글들을 통해 문장 수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작성한 글은 교정 혹은 교열을 거쳐야 한다.

최근 JTV 전주방송이 전북 도내 어느 대학에서 기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기사 첨삭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2시간 동안 단신 기사와 리포트 기사의 올바른 작성법을 설명했다.

기자 윤리와 취재원과의 관계 형성 등도 소개했다. 방송국은 앞으로 해당 대학 신문방송학과와 함께 기사 첨삭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1872년부터 글쓰기 교육을 시작했다.

'Freshmen English'라는 신입생 작문 과목을 미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곳은 단어 몇 개를 고치는 형식적인 수준의 첨삭이 아니다.

학생들과 1대1로 대화하면서 문장의 구성만 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준다. 그리고 계속 고쳐 쓰게 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글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기사 첨삭 지도 및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기자들은 글쓰기의 초석이 되는 기초 기사 작성법 및 취재 기획서 작성법 등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

흥미를 할 수 있는 기사 제목 뽑기, 대화 및 발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 다양한 기사 작성법을 익혀야 한다.

글쓰기는 비단 언론사 등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스피치 교육과 함께 글쓰기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도 경제 전반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식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하고, 북한 매체가 그대로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00만 톤에 이른다.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섰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형, 실용적인 스몰딜, 단계별 핵 능력을 축소하는 스몰딜을 하겠다면서 실용적 접근법을 내놓았다.

이는 상당 부분 북한 입장과 부합한다. 북한 역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법은 국제사회의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G7 정상회의에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을 공유하고 공동성명에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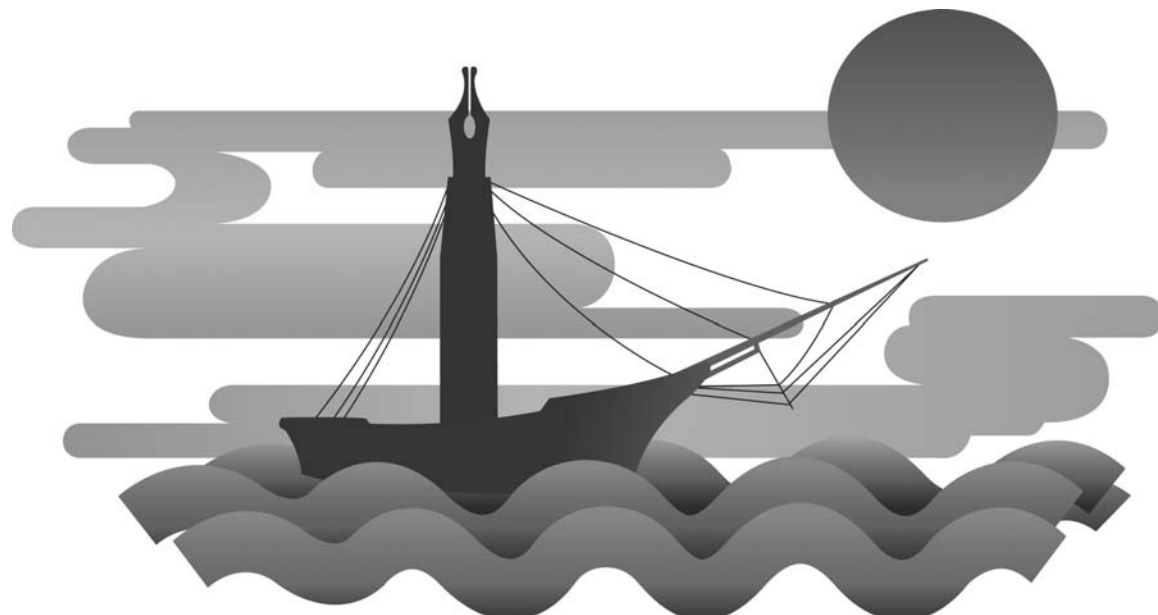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와 경제 협력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 요청도 빠지지 않았다.

중국을 겨냥한 듯 모든 국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정상들도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북한에 핵전력과 탄도 미사일 폐기를 증용하면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민간단체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21년 전 성과와 난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단 한 줄의 논평도 없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연락 채널 복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